

<2012년 10월 1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실상을 실상으로 깨우쳐 줄 것이 없으면, 비유해서 보여 주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며 꿈에 혼체에게 계시해 주기도 하시고, 기도할 때 보여 주기도 하신다.

2. 동물은 ‘이빨과 발톱’으로 먹이를 잡으며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만, 사람은 ‘입의 말’을 무기로 삼는다.

3. 동물은 ‘이빨과 발톱’으로 잡고, 사람은 ‘입과 마음’으로 잡는다.

4. 동물은 이빨과 발톱으로 먹이를 못 잡으면, 몸만으로는 못 잡는다. 사람은 성자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정신·생각을 못 잡으면 못 잡는다.

<설명> 너희 자신을 보아라. 입으로 사람 잡는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과 정신으로 사람을 잡아 나간다. 고로 사람을 대할 때 선한 말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특히 지도자들은 생명들을 말씀의 검으로 잘못 치면 안 된다. 잘 보고 쳐야 된다.

예전에 어떤 사람은 월명동에 선생이 기른 나무인데, 자기가 볼 때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너무 좋은 나무를 자르기도 했다. 80년 동안 기른 동그래산 뒤 바위 위에 있는 소나무였다. 한 번 자른 소나무는 그대로 끝이다. 이와 같이 말로 사람을 한 번 잘못 치면 그대로 끝난다. 말은 검이고 톱이니, 말할 때 잘해야 된다.

5.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이론과 이념과 사상으로 백성을 다스린다.

6. ‘입’으로 가시는 주님의 발길을 붙잡아라.

7. 성자 주님은 새벽에 잠만 깨워 놓고 가실 때가 많다. 그러니 얼른 일어나

기도하되, 기도만 하지 말고 입으로 성자 주님을 붙잡아라.

8. 형제들과 생명들도 입으로 잡아라. 곧 사랑과 화평과 덕을 세우는 말로 잡아라.

9. 나에게는 글이 입이다. 성경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의 입이다.

10. 사람들은 입으로 흥년도 만들고 풍년도 만든다. 재판도 꾸며서 감정대로 한다.

11. 입 가지고 제 마음대로 거짓으로 놀리는 자는 모두 자기가 행한 대로 탕감을 받는다.

12. 어느 날 성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입을 잘못 놀려서 내 앞에 실수한 것들, 즉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은 100배로 탕감을 받아야 그 후에 다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하며 명백히 말씀하셨다. / 모두 입조심하여라. 그래야 평화가 온다.

13. 죄에 대한 탕감과 형벌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생명길을 못 간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자기가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 후에 복직하여 다시 사명을 하게 된다.

14. 각 기관, 각 부서 지도자들이 화평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일하니, 지금 그로 인한 탕감과 형벌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화평하지 못한 대로 자기가 심적 고통, 정신 고통, 지옥 고통을 그 차원대로 받는다.

15. 선생이 이를 알고 기도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으면, 절대 탕감을 받으며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 사탄이 놔주지 않는다. 하나님도 죄를 지은 자가 탕감을 받는 것은 법이라서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고 하셨다.

16. 탕감 없이 형벌 없이도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신약 때 나사렛 예수님도, 성약 이 시대 사명자도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다.

17. ‘말’과 ‘행실’로 인하여 죄를 짓고 100배나 탕감을 받는다. 고로 하나님은 그에게 계획하신 일을 취소하시고, 그가 죄로 인한 탕감을 받아 조건을 세우게하시고, 기간을 연장한 후에 다시 일을 하게 하신다.

18.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했다. 이 말씀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여 악평하지 말고, 말을 정말 조심해서 잘해야 된다.

19. 재판할 때도 자기가 말한 것을 가지고 한다. 가령 “내가 죽이려고 했었다.” 하고 말하면, 안 죽였어도 “살인하려 했구나.” 하고, 그 말이 죄가 되어 몇 년씩 탕감받고 형벌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

20. 거짓말하는 자는 ‘참말’로 잡고, 사망으로 가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잡아라.